



현실적인 이상주의, 이상적인 현실주의

리처드 해리스 지음 | 안태진 옮김 | 비아출판사

책이 살아 숨 쉬다

책을 펼침과 동시에 한 사람이 어른거린다. 한국 복음주의적 사회 참여에 앞장서서 손봉호, '선지자적 비판주의'(prophetic pessimism)로 요약되는 사회참여에 대한 그의 가치관은 철학에 대한 깊은 학문적 연구를 토대로 어떤 소득이 없는 비판이라 해도 여전히 건강하게 비판적일 수 있어야 한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궁극적인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며 개인의 노력은 어떠한 직접적 기여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인간이 살아야 할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그의 명령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도덕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를 지님을 강조한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사회구조적 악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개선에 힘을 써야 하며, 이것이 사회정의의 구현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맥락은 라인홀드 니버가 보인 집단의 비도덕성에 대한 현실주의적 분석이 미친 영향이 아닐까 싶다고 혹자는 평한다. 이는 개인 중심의 윤리관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기독교윤리 실천운동(기윤실)의 초대강령에도 큰 사상적 뒷받침을 제공하였다. 그리스도 없는 인본주의적 사회개선의 노력을 거부하며 성화된 개개인이 사회구조를 바

꾼다는 그의 신앙적 고백이 삶의 실천 윤리로 발현되어 한국사회에 적합한 실천적 이론의 토대를 제공하였다(류대영 외, 1980년대 이후 보수교회 사회참여의 신학적 기반,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18호, 2003, 37-75 참고).

니버의 저서를 읽으며 이 세상에 악이 도사리고 있으며 고난과 역경이 만연하다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겸손하고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냉소주의나 나태함의 구실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니버는 이러한 노력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 그럼에도 순진한 이상주의에서 냉혹한 현실주의로 손쉽게 태도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7p, 버락 오바마)

훗날 미국의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가장 궁금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자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끼치는 그의 행보는 역사에 기록될 다음이 더 기대된다. 그런 그가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이자 그의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친 라인홀드 니버이다. 또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또한 니버의 저작들을 '정치학의 성서'라 칭했다. 손봉호, 버락 오바마, 지미 카터... 국내의

하나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과
 변화시켜야 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와
 그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_니버의 '평온을 비는 기도' 중

명망있는 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라인홀드 니버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책을 썼는지 더 궁금해진다.

기독교적 무엇을 추구한다면 니버처럼

손꼽히는 몇몇 도서가 있다. 특히 세계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첫 질문은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세상은 왜 이럴까?' 일 거다. 이때 주저 없이 끄는 책이 바로 라인홀드 니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 사회』다. 더불어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란 질문에 봉착하면 기독교 문화관의 교과서와도 같은 책, 리처드 니버의 『그리스도와 문화』를 꼽는다. 여담이지만 니버 형제가 사회문화를 꼭 잡고 있구나 속으로 웃다가도 그들의 책은 좀체 읽히지 않는다. 두 권 다 쉽게 볼 만한 책들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탁월한 가이드가 필요하다. 니버의 사상이 어떠한지, 그의 영향력은 무엇이며, 그의 사상에는 어떤 비판들이 있고 어떤 저작들이 있는지, 이 책은 그런 이들에게 세심하고도 접하기 쉬운 가이드를 자청한다.

저자는 니버를 그의 시대에 대한 인식과 통찰을 전적으로 성경적 관점에서 제시한 철학자로 평한다. 니버의 사상에 기본이 되는 죄의 보편성은 아마도 그의

책,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 사회』에서 정점을 이루지 않나 싶다. 조직화의 맹점과 성화된 개인 실천의 윤리 강령은 결코 우리의 어떤 동기도 온전할 수 없다는 겸손을 가르친다.

무엇보다 읽을수록 빛이 나는 것은 니버의 접근법이 '기독교적 무엇을 추구하는', 일명 기독교지성인에게 학문적 지평을 넓히는 좋은 예이자 모델이라는 점이다. 언젠가부터 기독교적 학문이 기독교적 무엇을 재생산하는 데 치중하여 학문 고유의 방식을 외면하고 구조는 무시한 채 몇 개의 성경구절을 얹히고 깊이 없는 알팍함을 마치 해답을 본인만 아는 양 정해 놓는 꼴은 아닌지 두렵다. 진리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학문적 틀을 절대화하여 교조적, 독단적인 형태만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여 지는 학문적 계토를 기독교적 학문이라 둘러대는 것은 아닌가 겁도 난다. 교회 안 무신론(입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나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과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만연한 지금, 진정한 기독교적 학문과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는 숙고해 봐야 할 때이다.

오히려 기독교적 학문 세계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학문을 장난치듯 해 볼 수 있어야 하는 자율성이 필수이다. 이 시대의 (기독교적) 학문 이든 메시지든 소통이든 그것이 기독교라는, 우리끼리의 유리벽 안에서 외침뿐이라면 재검해야 한다. 니버는 결코 자신이 몸 담은 사회를 배제한 적이 없다. 니버의 이런 접근법은 우리끼리의 연구, 학문, 문화, 인지가 아니라 모두가 그러하다 공감할 수 있게 투영되어야 할 도전이자, 적실한 예이다.

그가 쓴 저작은 대부분 기독교 신앙을 견지하며 희망을 놓지 않은 채 현실적인 태도로 세계를 조망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46p)

물론 비판의 소리도 있다. 이 책의 4장은 니버의 비평가들의 비판도 소개하고 있다. 대부분의 니버 비평가들은 자연신학에 의존한 그의 기초신학을 비판한다. 니버의 예는 기독교적 무엇을 추구하는 일은 '늘' 비판을 받아 왔고 받는다는 것을 알려 준다. 우리 모두가 조직신학자로 신학에 정통하지 못하는데 누군들 정통하다 자부할 수 있겠는가? 나와 그의 신학이 다르므로 그의 이론이나 저술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에게는, 그렇다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모든 노력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며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에만 천착하게 된다'(49p)는 저자의 말로 반문해 본다. 적어도 학문을 연구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그의 윤리적 접근방식 자체를 무시할 수 없다'(57p). 우리는 하나님나라를 소망하기에 끊임없이 현실세계와의 다리를 놓는 데 주저하지 않는 야성을 지녀야 한다. 그런 야성이 기독교인을 다양한 학문과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성화된 개인,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할 것이다. 니버는 이 관점을 순진한 이상주의 눈이 아닌 냉소적 현실주의로 끝까지 견지한다. 이미 타락한 세상, 인간의 죄성,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말이다.

책 읽기, 저자 읽기

고작 120페이지이다. 이 작은 책자 속에 조금은 난해할 수도, 어려울 수 있는 라인홀드 니버의 사상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며, 니버의 사상을 비판하는 비평가들의 평가와 그의 저서, 함께 읽어 보면 좋을 책들과 저서목록, 연보 등은 한 저자를 더 깊이 알아 가는 즐거움을 제공한다.

멋진 풍경을 감상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잘 감상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미 그곳을 몇 번 가 본 이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혹

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도움을 얻는 방법이 있다. 책 한 권을 읽는 것, 나아가 저자의 다른 도서들과 함께 그 저자를 읽는 것이 아마 읽는, 알아 가는 즐거움이 배가되지 않을까 싶다. 좀처럼 읽기 어려운 스텐리 하우어워스, 쇠안 키에르케고어, 헨리 나우웬, 아씨시 프란치스코, 토머스 머튼, 디트리히 본회퍼 등 이 책 시리즈는 저자별 책 읽기를 손쉽게 가이드 해 주며 다양한 자료를 담아 풍성한 읽기로 초대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주도적인 문화에 맞서 기독교가 그 고유의 목소리를 들려 주기를, 대안적인 세계관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_65p

얼마나 우리는 우리 고유의 소리, 대안적 세계관을 보여 주고 있는가? 말도 안되는 정치판과 언론, 대중문화 속에 가끔 등장하는 기독교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는 다른 이들과 대별되는 삶의 모습을 품고 있는가? 보여지는, 영향력 있는 몇몇의 입술 위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리고 누구보다 그런 '나' 가 되기를 꿈꾼다. 우리가 상처를 아는 치유자 나우웬과 같은 이가, 더러는 토머스 머튼 같은 영성가가, 불의에 저항한 본회퍼와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프란치스코와 같은 사람이 되어 만나기를 바란다. 그런 사람들을 찾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자신이 그런 책과 같은 사람들이,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 그것이 우리가 저자를, 책을 읽는 이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글 | 신효영

건국대에서 디자인을, 총신대에서 기독교문화를 공부했다. 출판사 편집부, 미디어 강사를 거쳐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대표간사이자 <월드뷰> 편집인으로 있다.